

은혜와 평강

(엡 1:1-2)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정현민 목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삶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였다 것은 그가 부름을 받기 전에 포행자요 핍박자요 훼방자였기 때문입니다(딤후 1:13).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들여 옥에 넣기니라"(행 8:3). "사울이 주의 사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동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행 9:1-2). 다메섹에 오기까지 그는 예수를 핍박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며, 교회를 핍박하여 잔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여 이를 이루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그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바로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 9:4)라는 주님의 음성과 밝은 빛 앞에 결국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눈이 멀어버린 채로 사흘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무력해진 그는 기도를 하는 자로 변화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핍박자요, 포행자요, 훼방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한렘루어! 이처럼,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가 자원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

요, 그의 종교적 열심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임한 동일한 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만 은혜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혐기나 핍박한 적이 없었고,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을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보다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니라"(롬 3:10-15)라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악이 우리의 죄악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였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것은 바울의 고백(고전 15:10)!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죄악 가운데 고민하고, 미혹 당하고, 넘어지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감을 기억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에게 전가된 의(義)

바울은 이어서 서신을 받는 이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그들의 신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

니다. 아테미 여신상을 비롯해, 각종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행 19:17-20).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엡 4:20-24, 5:3).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흠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성도들'(saints)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어둡고 당고로 넘어지는 이들을 향하여 거룩한 자들, 성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인간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골고다 언덕에서 그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를 알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요 1:29).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했습니다(롬 5:10).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고전 1:2).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된

이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고,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입고 있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습니다(엡 4:22-24).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비롯되었기에 주님께 모든 은혜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진실로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다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롬 8:17).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주간성경공부

2003년도 전반기 주간성경공부

2003년 3월 11일(화)~5월 22일(목), 12주간

* 전반기 12시간 후반기 10시간 총 22시간으로 한다.

창세기

인양역사(수요일, 1400~1530)

창세기는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부터 시작한다. 그 곳에는 우리 인간의 시작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창조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복음 1장에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는 곧 구원의 시작이요, 십자가의 출발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창조부터 함께 계셨다는 것이다. 우리 창세기를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볼 때에 이 세상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이요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약은 400년이 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며 이것을 끊임없이 증명했다. 따라서 그 첫번째 예언인 창세기에 나타남을 잘 살펴볼 수만 있다면 신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달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열상

이수근 목사

(수요일 1400~1530, 목요일 1930~2100)

사무열상은 B.C. 1105년 사무열의 탄생부터 B.C. 1010년 갈보아 전투 중 사울의 사망까지 이스라엘의 초기 왕자 세대가 정착해 거둔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본서는 모세, 여호수아 시대는 물론 사사시대까지 계속 유지돼 온 신정체제가 사무열 시대를 끝으로, 비록 외왕중왕으로는 왕정 체제로 바뀌었으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무열을 통해 주관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시고 또 그를 사무열의 뜻에 대한 순종을 기점으로 배하시거나 세우시거나 하심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왕정 체제가 세워진 것도 그리고 유지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신정왕국의 형성 과정과 그 후기를 살펴보고 또 그를 사무열의 뜻에 대한 순종의 주관자의식을 깨닫게 한다.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정왕국의 원리를 영원한 메시야 왕국, 즉 훗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실 천국의 완전한 성취를 대량해 한다. 또한 본서는 우리에게 다시 신정왕국을 위하여 사역한 사무열을 본받아 메시야 왕국을 실현시키시는 주님의 선행 사역자들이 되도록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다.

시편

김동아 목사(화요일 1030~1200)

시편은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의 한계를 뛰어 넘고 있는데, 제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될 때 그 자체로 간절하고 정직한 기도요 찬양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시편은 역사적으로 예배와 찬양, 찬송 문인 영창, 또는 찬송가로 불리지고 남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라는 표현방식 자체가 평이한 문체보다는 고도의 문체 또는 함의적이거나 암시적인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석에 대한 신중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그분의 성령의 공동체성을 듣게 되므로 언제나 시편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서 창조자이신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날போ고자 한다.

이사야

방준영 목사(수요일, 1400~1530)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창이 아니라 땅인이요, 창에 대한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창 29:11). 이는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하여 확증된다. 인간은 거듭 실패하고 뉘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었고 창에 소망을 향한 그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언제나 미쁘신 주님을 찬양한다. 실패와 회복, 심판과 구원이 성경 역사의 요망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사의 흐름속에 성경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된 회복자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선언한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실패와 심판속에 올라 퍼지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무너진 자리에서 되살아나며 주님께로 돌이켜 풍성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영적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노아의 대를 기억하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으로 온갖 불의와 악이 만연된 강포한 시대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의 은사가 남아 있었다.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었다. 그들을 통하여 홍수 심판 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를 남겨두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심을 입은 교회, 그 가운데 담시나 있다. 남은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이사야서를 통하여 듣길 원한다. 그 음성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들로 세워지며 쓰임받길 소망한다.

마태복음

서양인 목사

(수요일, 1400~1530/목요일, 1930~2100)

마태복음은 첫 복음서요 왕적인 복음서라는 특징 외에도 체계적인 구성과 신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메시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야, 즉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낸다. 단지 왕정국으로 부활 사건 이후가 아니라 수난의 순간에도 메시아로서의 권리를 지니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인류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며 사람들을 자비로움과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도 명백히 보여 준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예수께서 최후로 명왕하셨던 신교의 사명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로마서

김동아 목사(수요일 1400~1530)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로마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많이 읽히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잘 알고 많이 읽히지'만 진실로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의 깊이를 아는지?' 하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말로 그렇다. 깊은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

내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족한 말씀이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의 고백이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백합니다. "김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을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아무쪼록 이번 로마서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하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빠진 바울의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한다.

제 56기 교사양성부

2003년 3월 9일(일)~5월 25일(일), 12주간

매주 일 오후 3:00~4:50, 제1교육관 208호

제 27기 찬양대원 양성부

2003년 3월 9일(일)~5월 25일(일), 12주간

매주 일 오후 3:00~4:50, 찬양위원회실

구약장영성훈련

여성구약장

기간: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

장소: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

강사: 각 교구 교역자

교재: 매달 <창의의 민노> 중 구약예배 공과

남성구약장

기간: 매월 1회 수요일 2부 예배 후

(교구별로 주간지정)

장소: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

강사: 각 교구 교역자

교재: 매달 <창의의 민노> 중 구약예배 공과

교사 신규 임명 및 퇴임(2003년 2월 5일자)

임 명

유아부	김성학	장선웅	안태희	박경아	윤미주	이주희	황은정	혜혜리
초등부	오영록	김영환	이현자	김재순	정해진	김두순	이정덕	최종남
중등부	김성은	권 진	이상금	김창환	이덕용	정영목	라은정	이나라
고등부	최유환	최태환	조웅진	장정은	성명선	손은진	이양선	이우주
	김효연	정무민					김진용	권현우
청년2부	김장숙	노충현	고혁준	권현주				
장년2부	전화례	신현수	황학규	나승은	이강근	한현희	박차화	차창숙
소양부	오훈성	한현길	장승규	노혜재	이미주	오해숙	안수자	박윤석
	김욱기	백경국	임창순	남현숙	권영애	박승금	김정수	이현복
신혼가방	구성희	박소연	이혜정	김정용	이지영	최귀곤		

퇴 임

유아부	김정열							
초등부	이상남	이승득	윤숙희	이교은	이수연	이원희	이종영	이한순
중등부	김원환	오준민	정달영	한병구	김지은	김진순	문희원	오현정
고등부	박지현	문상식	원종화	이상식	박소연	전정권	최종복	최승연
청년2부	강순희	김현진	임동계	박진원	김정숙			
장년2부	김정희	정은자	유영식					
소양부	강진선	강진덕	김두선	김해길	정정자	한영덕	조복덕	김은심
신혼가방	강대선	최은숙	이은미					

복음들고 나가는 자

김 아 슬 (대학부 스리랑카)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항상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저 하나의 유행어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가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가만히 있어도 맘이 주르르 흐를 때는 맘을 식힐 수 있는 그들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사역 전날까지 비가 그칠 줄 몰랐지만 우리가 밖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비를 그치게 하시고, 내리도 가랑비만 내리게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스리랑카’ 그 아름다운 땅 하지만 주님을 모르고 죽어 가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이 영혼들을 보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하게 주님을 믿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 많은 민족이 살고 있지만 한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한 지역이 가기로 한 우리들은 4시간이 넘게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꼭 이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는 동안 자신들 앞에 떨어진 상황만 보고 불평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달려간 곳은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마음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동안 저는 무너졌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까?” 라는 말에 “아멘!”을 외치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지? 세상의 것들로 계산하는 오래된 믿음을 갖고 있던 내 자신보다 그들의 믿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삶이 가난하다고 해서 주님께 향하는 맘이 가난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그 마음에 있던 어느 집에 틀어박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자신의 아픈 곳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음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하렘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지 못하고 약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라며 선교를 미뤘었던 저는, 그렇게 말할 때가 가장 준비된 때인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보내셨는데, 아직도 “주님 제가 여기 있어서 저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찡찡한 채 숲의 큰 전향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족복음화’를 위한 행진

방림교회 설립예배

본 교회 5대 목회 중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전도위원회가 주관하여 시작되었던 지교회 설립이 2년여의 기간을 지나면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첫 설립지는 경기도 평택시 방림교회다. 그 곳은 100여 가구가 흩어져 있는, 교회가 없는 농촌지역이다. 교회명은 방림교회라고 부르고역자는 이정철 목사이다. 지난 2월 11일(화) 오전 12시에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30여명의 임원들이 그곳에서 은혜로운 첫 설립예배를 드셨다(사회:김광남 장로/기도:최대원 장로/찬양:김소연 집사/말씀:여국근 목사/경과보고:박철구 장로). 방림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온 교회가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⑤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간충천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역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간은 4월이나 5월 정도에 9박10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카라간다, 아스티나 등 세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2. 현재 팀구성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 내 구역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CMTC 훈련의 필요성과 CMTC에서 진행하고 있는 언어훈련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팀이 구성되었다면 팀 구성원들에게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현재 저희 지역 부지역장을 비롯해 구역장들로 6명 정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연령대는 50세 이상이며 여성분들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여섯 분 모두 단기 선교를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4.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제목을 적어 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주님의 입김으로 성장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복음화되길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길 기도합니다.
5.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제로 삼고 싶은 성경구절과 그 이유는?
마28:19-20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름:이명환
2교구 6지역장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⑥

1. 지역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작년 8월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와 시미르칸트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나일에게 만일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현지 교회에 나갈 것을 권면했을 때, 이 지역에는 교회가 없다고 대답하던 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라도 있었으면 하는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친승가와 성장계를 구해주고 자체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에 했던 방식대로 2인 혹은 3인이 한 팀이 되어 노방전도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 지역적 중심의 단기 선교팀 구성이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초무로 두 번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팀장으로 기러고 하니 부담이 큼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도 길도 없지요.
3.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 주세요.
우리의 믿음에 전할 복음을 주시길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팀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하게 될 시미르칸트 가정들을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가정교회가 설립되길 기도합니다.
4.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제로 삼고 싶은 성경 구절과 그 이유는?
주제성구 마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였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5. 단기 선교에 임하는 본인의 각오로 말씀해 주세요.
단기의 십자가를 생각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길 소원하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름:김진숙
3교구 7지역장

믿음 안에 거하는 자



백 찬 회 (대학부 입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 시험함은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고후13:5)

요즘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내 마음에 하곤 한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대학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괴연 예수님께서 대학부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실까’하고 고민한 적이 있다. 수련회를 소망하지 못하는 지체들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불안해했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한다’는 생각과 ‘소망이 없는 지체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끌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컸다. 주님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수련회는 눈앞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주님의 영력을 점점 좁혀가고 있었다. 나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난 비로소 인정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항상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어느새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버리고서 기다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셨다. 떠났던 영혼들을 부르셨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그때마다 지체 하라하시고 난 은혜들로 채우셨다. 더욱이 기도하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길 원하신다.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자를 원하신다. 내가 살아 있어서 자꾸만 보이는 것에만 의존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우리가 가야 할 신지

김 은 심 (선사, 대학부 부장)

은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 세상은 이 세상의 복을 바라며 로마 복권의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만 하늘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시간 시간 쏘아치는 영혼의 만나로 인해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눈물, 눈물 쏟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저룹니다. 밤새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에 고요한 밤의 적막을 깨뜨리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만지며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썩어질 복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동문서답하는 어리석은 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몇 톨의 땅을 구하는 우리에게 은 천하, 아니 은 천상까지 주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기다림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구해야 할 것이 내가 소유해야 할 산지가 아니라 내가 복을을 전해야 할 산지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복음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함을 바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얻는 그 비밀스런 기쁨은 오직 주님과 나밖에 알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껏 높이신 이의 능력을 뎡오시어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신 이 십자가로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의 괴수인 나, 비천하기 그지없는 나의 어눌한 혀와 미련한 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신성, 당신만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위해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밟고 취하는 산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산지가 되게 하소서.

기도원에서만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소서. 오늘날 연약한 무릎을 꿇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은 열방을 산지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학부 지체들이 이집트와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들고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리하심을 바라옵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가 소망하며 품었던 기도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추어진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나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나를 겉결이 포장하고 그 모양으로 평가되길 원하는 사람이었다.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진짜 모습을 보이기가 두려웠다. 위엿 것보다 땅엿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모습, 다른 영혼보다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모습,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나의 소유가 부족하다며 불평하는 모습.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내가 포장되었던 나 자신에 어느새 익숙해져 죄에 대해 점차 둔감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나를 위한 은혜의 선물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작나라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점점 달아오르는 냄비 속에서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영혼이 죽을 것이 틀림없었다.

수련회의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 지체들과 손을 맞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셨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모든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할 때에, 그에 비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이 실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 투박하고도 목칙한 십자가 앞의 나는 정말 너무도 작고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 때에 비로소 이러한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다.

주의 보혈은 진정 강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을 때, 가려온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새롭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진 나의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견딜 수 있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인한다.

김 수 정 (대학부 팀장)



성경과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 내에서 민주적이기 못한 방법이 시행되면 교회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돌아간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립된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인간, 그것도 다수의 인간에게 있다. 즉, 민주주의도 인본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성경은 원칙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는 제도는 그 자체로 악하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롬 3:10-15). 그 죄로 인해 낙원에서 쫓겨났으며,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낙원을 잃은 인간은 낙원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들의 유평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실현시켜 봤지만 유평토피아는 건설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 더해 갔다. 인간들의 유평토피아(삼상 8:5)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셨지만(삼상 8:22), 왕정은 오히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였다(삼상 12:19).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제도에 의지한 것 자체가 악한 행위였다(삼상 12:17). 그러스의 공화정도 유평토피아를 만들지 못했으며, 공산주의도 무너졌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완전한 제도인가? 민주주의 역시 얼마나 많은 범죄와 고통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 어떤 제도도 없이버린 낙원을 대신할 수 없다. 그 제도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낙원을 대신 할 만한 유평토피아가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죄인들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 보혈로 죄를 씻어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낙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여 사랑을 배부르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간단한 진리가 하나님의 제도이다. 성도에게 이것 이외의 제도는 없다. 왕정을 치를 시작할 때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였다(삼상 11:15). 우리도 삶 속에서, 혹은 교회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민주적인 방법이 오직 옳은 방법인지 주장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지는 않는가? 인간에 속한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골 2:13). 제도가 법칙이 아니라 주의 뜻이 법칙이다. 주님이 우리의 제도이다.

(권요섭 기자)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우리 교회 솔로리스트들은 찬양대 합창 뿐 아니라 예배 전 찬양, 헌금 찬양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솔로리스트들을 찾아가 찬양으로만 듣던 그들의 간증을 대화를 통해 나누고자 한다.

1. 특별히 즐겨 부르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539장 "이 몸이 소망 무연가", 542장 "주어 지낸 밤 내 꿈에"를 즐겨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며, 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2. 찬양과 관련된 간증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오니다"라 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 오라 하시고(마 14:17-18).

하나님께 드릴 것이 어디 노래뿐이었는가? 제가 꼭 노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래동안 갈등했습니다. 지금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가진 것이 무엇이야? 내가 네게 준 것으로 내야 영광 받기를 원하냐? 내가 네게 준 것이 무엇이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께서는 제에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목사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한 마디 한 마디에 제 믿음을 담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 찬양대원으로서 섬기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뵈 때에,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얼마나 유망했어? 얼마나 성공했어?"라고 묻지 않으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며 그 부르심에 순종했는지가 중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일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4. 찬양이 내린 기도재물을 말씀해 주세요.

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깨끗한 통로로 쓰이며, 제 찬양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나라의 찬양에 매달려 있는 곳에 저의 찬양이 전도의 도구로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김희숙 집사
임마누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임혜원 기자)

♪ 다음 주일 찬송

356장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송은 1862년 실바니스 드라이트 펠프스(S. D. Phelps, 1816-1895)박사가 실생활에서의 헌신을 읊은 것을 쓴 찬송이며 미국 침례교회 목사요, 대학 교수인 작곡자 로우리 박사에 의해 작곡되었다. 작곡자 로우리 박사는 전문음악인이 아니지만 찬송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40세 이후에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였다. 로버트 로우리(R. Lowry)와 윌리엄 돈(W. H. Doane)이 공편한 주일학교 찬송가집 '순금(Pure Gold)'에 수록할 때의 제목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로 이것이 우리 찬송가에 실린 것이다.

- 1절: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와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신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 2절: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열은 믿음이 아물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않네
- 3절: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와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기나 베풀게 하옵소서
- 4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쁘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음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찬양위원회)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시편 129편-인내

인내는 건디가 힘들거나 고통스런 기나긴 과정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한결같은 태도처럼 여겨집니다. 즉, 완전함보다는 꾸준함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 인내는 예수님을 비롯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는 밋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려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밋시를 당하였고"(사 53:2-3).

심한 거부와 모진 박해에 익숙한 자의 초상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쌍하고 미약한 자 - 예수 그리스도 - 가 한없는 용서와 평안 가운데 대 구원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바울도 역경과 핍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고후 11:23-29). 그러나 그는 이것도 그의 믿음의 행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모진 역경과 통렬한 고통 속에서도 옹크리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무조건 견뎌내면서 세월이 흘러도 한 곳에 고인 물결은 상대로 머물러 있거나, 모든 것을 포기한 체념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시 129:4).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린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범한 지구력의 소유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우사 우리 결을 떠나지 않고 계신 까닭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는 모든 존재와 상황들이 '자라기 전에 마르는 풀'(시 129:6)과 같아져, 가지 없고 헛된 잎에 얽매어 마음과 생각을 상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분명,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히 12:3). 불평을 멈추라. 순례의 노정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 결을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꾸준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발걸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지도를 그림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에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1-2).

(임혜원 기자)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박주현 성도를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다녔지만,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늘 함께 해 주시고, 힘들 때 세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음을 알았고, 제 죄를 사하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충현 교회에 나와 새가족부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것을 비롯,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제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셨으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 고집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자만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분께서 저를 볼드시며 인도하심을 알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저의 갈 길을 일러주시고 생활 속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준석 통신원)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1	황순상	1 장년3부	이진규(6)	157	이규진	19 대학부	송효원(1)	163	임영주	19 대학부	정주연(8)
152	김남숙	1 장년1부	김승규(1)	158	최영남	19 장년2부	이규숙(12)	164	김정훈	19 대학부	이기연(1)
153	박은영	1 장년2부	이상욱(4)	159	김종현	19 장년1부		165	최수환	19 고등부	최수자(2)
154	박강훈	1 장년2부	이상욱(4)	160	황수진	19 대학부	강진영(6)	166	박미영	19 고등부	이향호(8)
155	조종국	4 장년2부	임병희(4)	161	김동민	19 대학부	권재복(4)	167	최이나	19 고등부	
156	유재원	7 대학부		162	김준남	19 장년2부	이종영(7)	168	박지혜	19 고등부	

※ 순회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2023년 새가족 등록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이태환 (중등3부)



회장이 되고 무척 높았습니다. 회장이 되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분들의 추천으로 회장선거에 나가게 되었고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당황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중등3부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정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면리회를 이끌고 나갈 책임감과 중등3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1,2학년 때에는 믿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회장이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3학년이 되어서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중등3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면서 교회에 충실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중등3부를 위해 봉사 하려면 중등3부 친구들을 좀더 알아가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중등3학년 학생들이 면리회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으로선 한발짝 더 다가서서 중등3부 친구들에게 면리회를 알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저 자신부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노력하며 지낼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중등3부라는 이름 하나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움을 주는 모습입니다.

면리회가 중등3부를 생각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닌, 중등3부 친구 모두 함께 중등3부를 생각하고 함께 봉사하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자라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먼저 섬기신 모습을 본 받아서(요 13:5) 저도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는 회장이 아닌 학생들을 섬기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새벽에 눈 뜰 때,

오늘도 생명을 얻장시키신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귀찮아하며 짜증내지는 않았는지

아침에 식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반찬투쟁이 먼저 나오지 않았는지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기 보다는
컴퓨터 스위치가 손이 먼저 가지는 않았는지

일과를 마칠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시계 초침에 눈이 먼저 가지는 않았는지

집에 들어와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봉사할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텔레비전 앞에 바짝 다가서지는 않았는지

말씀보다는

연속극이나, 뉴스 보기를 더 좋아하며
가족간의 대화와 세상의 화제거리에 채워지는

이런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도 십자가를 홀로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험하게 올라가시는

주님을 부러워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최종철 (월서, 중등1부 지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사

박경진 (중등2부 교사)



예배시간에 늘 고개만 숙이고 앉아있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분반 성경공부 시간에도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있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든지 알 수 없었다. 부드럽게 이야기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했지만 늘 마친가 되듯. 교사 초년생인 나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아이들이 성경공부 시간에 좀 더 흥미를 가지도록 그림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기도 준비했지만, 그 아이는 늘 나를 외면했다. 교사와 학생의 눈과 눈이 부딪치고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야 교육이 될 텐데 내게는 불꽃은 커녕 작은 불꽃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나의 무능함을 절실히 느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늘 눈물이 흘렀다.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아이가 지난주 성경공부시간에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잠깐 놀라 가슴이 쿵쿵 뛰었다. 성경공부 시간 동안 우리 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과 내가 하나되어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교사는 성경공부를 손과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나도 아직 대학부에서 배우는 학생이다. 교사라기보다 교사 훈련을 하는 입장이다. 아이들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늘 배운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만난다. 아직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이지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을 바라본다. 오늘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와 아이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민음의 학교에서

왕이 된 다윗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삼하 5:3).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초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삼하 5:3). 이것은 다윗이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입니다. 첫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이 사루엘에게 받은 것이요(삼상 16:13), 두번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울 받을 당시에 받은 것이요(삼하 24),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의미는, 왕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루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대상 11:3).

이처럼 다윗은 온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을 하나님나라는 지루하게 긴 고난의 터널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삼하 5:5). 다윗의 통치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강성하였었습니다(삼하 5:10).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시온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으나, 결국 다윗의 손에 정복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으신 것을 아나니라"(삼하 5:12). "알다(아다)는 단순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어렵것이 않았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 그 본질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삼하 5:6-10), 블레셋을 정복하고(삼하 5:17-25), 히람 왕과 화친하는(삼하 5:11) 등 만사가 행통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신 17:17)을 어기고, 많은 처첩들을 취합니다(삼하 5:13).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과 사는 것이 다른 인간의 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과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갈 3:26).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권행의 기적)

교회소식

모임

1. 관사 2·3지회 월례회
일시: 19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별 세

1. 김중철 상도
이회규 집사의 장인, 김인숙 집사의 부친, 17교구 수저1구역 / 2월 6일 별세, 2월 8일 장례
2. 최희수 상도
이정근 집사의 장모, 인정옥 집사의 모친, 17교구 아매3구역 / 2월 11일 별세, 2월 13일 장례

결론

1. **장재은** 군(하연분 씨의 아들)과 김은희 양(김준호, 김사, 김용익 씨의 딸, 17교구) / 21일(금) 13:30, 가평대명하우스 3층 청실(4040-888)
2. **신영민** 군(박경자 권사의 아들, 4교구)과 **이연희** 양(이성민 태교교구, 오성재 태교강사의 딸) / 22일(토) 13:00, 산새대 웨딩홀 2층 다이나믹드레스(4호선 충정대(이누)역 1번출구)
3. **유성진** 군(유일성 성도, 신성준 태교강사의 아들)과 **이보람** 양(이동주 성도, 김영옥 집사의 딸, 4교구) / 22일(토) 14:00, 천치민교회 3층 대명홀(4호선 와촌정부 종합청사역)

주소변경

1. 오세길 집사/유호순 권사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삼기마을
삼성래미안 1차 Apt. 117-406호
031-274-9206

회계 실무 교육 실시

대 상 : 1·2·3교육위원회 총무처장 회계, 남녀 전도회 회계·부회계, 각기관 회계
일 시 : 2월 23일 15:30 장 소

신혼가정부 겨울수련회

주제 :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3:18)
일시 : 2월 28일(금)~3월 1일(토) 장소 : 제1교육관 201호
대상 : 신혼 가정 및 예비부부 신청 : 신혼가정부(교육관 206호)

추여보지와 모요탑 아래

대 상 : 비인가 사설 및 정신차제인 단체/장애인 복지관 이용인
시 간 : 매주 목, 금 10:00 ~ 17:00(조정가능)
이용료 : 무료 준비물 : 바느, 수건, 휴지 제공
문 의 : 564-8881내선 105 총무팀 한달 전에 예약(문의)

직원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이해와 감이 모진합니다

1. 모집부문 인생살림
2. 자격 세레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종현교회 사무국 ☎ 552-8200

대한체육회 주최 대회

전도위원회 남·녀 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2003년 2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2년 7월~12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교육관6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2002년 1월~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등

외선부 교사 모집

- 1) 자격 - 등록 사제교인으로 차령당사·심방지역·해당국가 언어 가능 자
2) 모집 대상국가 - 몽골, OS,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이란, 필리핀, 베트남, 태국
3) 연락처 - ☎ 552-8200 교28 이상석 집사 019-233-5754

수화교실개강(초·중·고급·통역반)

기간: 3월 16일(주일)~ 6월 29일(주일)
시간: 매주일 15:15~16:30 (통역반 15:45~16:45)
접수: 에바다부 사무실

2003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16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교광학 독서]	교육관 3교실	세례환자 (이수근 독서)	교육관 3교실	유아세례환자 (한정학 독서)	교육관 3교실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2월 23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현대니콜)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용덕/황의만	이성욱/문연석	고광환/장석윤	김창곤/이승우	위권량/조문수	김익환/김정신	여국근/장혜구

다음주(2/23~3/1) 예배 담당

예배	예배 전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I		김정주	이태식	모든 은혜의 하나님(편지 5:10) 방준영 목사
II	구름 같은 이 세상 / 앞도 노요함(임아유전 찬양대 송로이스트)	고광환	이계인	은혜의 평강(히 1:2) 정현민 목사
III	주 예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네 / 태니 감강(구미아유전 찬양대 지휘)	김동하	이 훈	은혜의 평강(히 1:2) 정현민 목사
IV	내 맘에 한 노래(에이 / 소프리스노 구아온(변별 찬양대 송로이스트)	나영명	엄필성	예배는 나의 자(요 4:23) 김윤용 목사
V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태니 유종훈(고등부)	김광훈	강모유	믿음의 기쁨(골 5:8) 김윤용 목사
찬양		류병희	김종구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골 6:11) 정현민 목사
소유 I		이성기	김희희	하루와 땅에 있는 자 축복예(레 314-15) 김동하 목사
소유 II		하종철	유영순	일나니 우리(로 11:3) 박기근 목사
금요찬양	특별찬양(아름다운 일요일, 철도 아중진 / 풍물 아중진, 손 김진성 / 고등부 찬양대) 찬양대	정호진		정현민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수월, 화요일 등 사흘의 제배)	본 당
	IV 오후 1:00(미국 등 사흘의 제배)	본 당
	V (영문어가 드는 제배)	본 당
찬양예배	오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집회	오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
금요철야	오후 10:30	금요집회

기독교인

월, 목 오전 1000 / 월, 화, 목, 오후 70
(동물경비실알출발)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 시무로 | | | | ■ 부득사 | | | |
|------------|------------|------------|------------|------------|------------|------------|------------|
| 김진태
신원동 | 김은호
교구수 | 노광헌
당동사 | 오진국
교구수 | 이병학
교구수 | 이종대
교구수 | 김동하
사경동 | 박인기
해곡동 |
| 최태원
해곡동 | 원필석
교구수 | 강모승
교구수 | 오정현
교구수 | 이 훈
신원동 | 이승기
교구수 | 이종철
교구수 | 김영훈
여곡동 |
| 남신우
신원동 | 정윤석
교구수 | 김영길
교구수 | 홍윤구
교구수 | 조인제
교구수 | 이수근
교구수 | 이창현
교구수 | 방준영
교구수 |
| 김종구
신원동 | 최무진
신원동 | 김전채
신원동 | 이창호
신원동 | 차신득
신원동 | 나광영
교구수 | 정진호
교구수 | 김윤덕
교구수 |
| 김광남
교구수 | 이종석
교구수 | 이병욱
교구수 | 안종욱
교구수 | 임무현
교구수 | 김광근
교구수 | 최진호
교구수 | 김성우
교구수 |
| 이종식
교구수 | 최기홍
해곡동 | 이갑재
교구수 | 김홍용
교구수 | 전홍열
교구수 | 임현덕
교구수 | 이희석
교구수 | 최종철
교구수 |
| 이정우
교구수 | 김단용
교구수 | 황영일
교구수 | 한윤규
교구수 | 김영수
교구수 | | | |
| 정홍식
교구수 | 김한기
교구수 | 원윤철
교구수 | 이형수
교구수 | 안동현
교구수 | | | |
| 황지만
교구수 | 김구형
교구수 | 최윤덕
교구수 | 이계인
교구수 | 박덕양
교구수 | | | |
| 이태석
교구수 | 정태두
교구수 | 박홍규
교구수 | 권명옥
교구수 | 조종환
교구수 | | | |
| 배준식
교구수 | 김영남
교구수 | 이철호
교구수 | 박찬식
교구수 | 최지윤
교구수 | | | |
| 노영환
교구수 | 박철구
교구수 | 정정길
교구수 | 신상수
교구수 | 강철형
교구수 | | | |
| 고재술
교구수 | 김영은
교구수 | | | | | | |
| 최신우
교구수 | 정영희
교구수 | | | | | | |

충현기도의 창

- ③ 감성적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 왜냐한 목은 그의 진리를 선포하는 절절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 소시.
- ④ 모든 교역자가 복을 위해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⑤ 성도와 안침자,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아래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⑥ 출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이신 5대 목회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⑦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권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니게 하소서.
- ⑧ 교구별 대회 지도자와 교구총회 전도를 통하여 출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⑨ 단기선교를 통하여 출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중국인 열매를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규칙을 오시는 각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Ⅲ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Ⅳ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Indonesian, and Bengali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